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5.(수) (조간) < 2026. 11. 24.(화) 13:30 >

동반성장주간(11.23~27) 시리즈 ③

중기부, 동반성장주간 맞아 ‘윈윈 아너스’ 상생협력 우수 사례 10건 선정

- ’26년도 제2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기념패 수여 및 우수사례 확산
- 기술 국산화·해외시장 진출부터 인공지능(AI) 혁신까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동반성장주간을 맞아 11월 24일(화) 「2026년도 제2차 윈윈 아너스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함께 이룬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건에 기념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상호 이익을 창출한 상생협력 활동 중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 홍보 지원,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핵심기술 자립 및 국산화 3건 ▲공공 인프라·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3건 ▲국내외 판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2건 ▲인공지능(AI)·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2건 등 총 10건이다.

먼저, **핵심기술 자립 및 국산화 분야**에서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경쟁력을 높인 사례들이 선정됐다.

한국조폐공사와 코레쉬텍은 5년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자여권 핵심 소재인 ‘힌지 메쉬’를 국산화했다. 한국조폐공사의 기술·품질 지원과 코레쉬텍의 자체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국조폐공사는 구매단가를 30% 절감하고 납기 단축을 75%까지 달성했으며, 코레쉬텍은 누적 매출 20억 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와 이옴텍은 제철소 현장 실증과 기술협력을 통해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철도 침목을 국산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무진기연은 20년간 축적한 기술협력과 해외 동반 진출을 바탕으로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을 이끌어냈다.

공공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상생협력 사례도 주목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센스톤은 국가 물관리 시설을 실증 장소로 활용해 수도시설에 대한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상용화했다.

해양환경공단과 쉐코는 공동 실증과 기술협력을 통해 AI 기반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상용화함으로써 해양환경 정화와 오염물질 수거 효율을 높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솔빛시스템은 전파 데이터 활용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180분이 걸리던 산악 조난자 수색 시간을 단 10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외 판로 확대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성과도 이어졌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산하이앤씨는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을 결합해 말레이시아, 몽골 등에서 광산환경 복원사업을 공동 수주했다. BGF리테일과 푸드코아는 유통·마케팅 역량과 제조기술을 결합해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한 ‘연세우유 크림빵’을 히트상품으로 성장시켰다.

인공지능(AI)·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한 사례도 선정됐다.

LG전자와 네오플라테크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했다. 한국도로공사와 모노플랫폼은 미납통행료 수납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무상 개방해 중소기업의 공공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대기업의 기술과 인프라에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더해져 함께 성장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이러한 협력 성과가 더 많은 기업과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내년부터 윈윈 아너스의 운영 방식을 개편해 매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현장에서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며,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해 상생협력 성과가 기업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손후근	(044-204-7920)
		담당자	사무관	서정남	(044-204-7926)
			주무관	권은경	(044-204-7912)
협력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책임자	부 장	심형택	(02-368-8705)
		담당자	차 장	나정준	(02-368-8943)

참고 윈윈 아너스 선정 기업 주요 상생사례

1. 핵심기술 자립 및 국산화 (3건)

❶ **'수입 핵심소재 국산화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로, 중소기업과 공동개발을 통한 전자여권 힌지 국산화 성공'**
(한국조폐공사 – 코레쉬텍)

❷ **'제철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의 만남, 고내구성 철도 침목으로 재탄생'**
(포스코 – ㈜이옴텍)

❸ **'수출길을 열다, 연구개발부터 중동 위기 극복까지!'**
(한국수력원자력 – 무진기연)

▲한국조폐공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자여권 핵심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코레쉬텍**과 **5년간 공동개발**을 추진하며 **기술·품질기준 제공**부터 **성능검증, 개발제품의 실제 구매까지 지원**. 이에 코레쉬텍은 자체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로 **힌지 메쉬 국산화·양산에 성공**하였으며, 조폐공사는 **구매단가 약 30% 절감과 납기 75% 단축**, 코레쉬텍은 **누적 매출 20억원 및 해외 25개국 샘플 공급 성과 달성**

▲포스코는 **이옴텍**의 폐자원 활용 기술 상용화를 위해 **제철소 철도 현장을 실증 장소로 개방**하고, 초기 시험 실패 이후에도 기술자문과 성능개선을 지원하여 **친환경 철도 침목 9종 국산화에 성공**. 이를 통해 포스코는 **외산 대비 구매단가 15.8%를 절감**하고, 이옴텍은 포스코와 **연 7.52억원 규모의 3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핵심 기자재의 기술 자립을 위해 **무진기연과 20년 이상 기술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장기 협력**을 이어오며, 국내외 납품기회 제공과 UAE 원전 동반진출 등 성장단계별 협력 지원. 무진기연은 **원전 기자재 SST*(Single Stud Tensioner) 국산화**에 이어 **MST**(Multi Stud Tensioner)를 자체 개발**하여 **인도 원전 독자수출 계약 1,051만 달러**를 **체결**하였으며, **한수원은 기자재 구매비 약 161억원 절감**

* SST(Single Stud Tensioner): 원자로 헤드의 볼트를 하나씩 조이거나 푸는 장비
** MST(Multi Stud Tensioner): 원자로 헤드의 볼트 54개를 동시에 조이거나 푸는 장비

2. 공공 인프라·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3건)

❹ **'수도시설 해킹 위협, WIN-WIN 협력으로 막다!**
(글로벌 최초 수도시설 제어시스템(OT) 특화 사용자 인증 시스템 공동개발·제품화 및 적용 확산)'
(한국수자원공사 – ㈜센스톤)

❺ **'바다 위 파트너십 – AI 수상로봇으로 함께 성장하다'**
(해양환경공단 – ㈜쉐코)

❻ **'산악 수색에서 미래 치안까지! 전파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재난·안전 드론으로 국가 안전 인프라 구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솔빛시스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중요시설의 접근 제한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안시스템의 기술검증에 어려움을 겪던 **센스톤**을 위해 **수도시설 5곳을 실증 장소로 개방**하고 개발비 2.4억원과 보안기술 자문 지원. 센스톤은 자체 보안 원천기술과 공사의 현장 운영 전문성을 결합해 **수도시설 전용 인증시스템을 상용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는 접속 이력 관리율 100%를 달성하고 센스톤은 **매출·계약 5.87억원 및 신규 투자 38억원 유치**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 저감을 위해 **쉐코**의 **선박·인력 등 실증 인프라를 개방**하고 **실해역 100회 공동검증과 현장 개선의견 97건을 제공** 하여 AI 수상로봇 상용화를 지원. 쉐코는 이를 반영해 **AI 수상로봇 3종을 개발**하였으며, 양측은 **공동특허 지분 배분 및 기술료 수익공유 체계를 마련**. 그 결과 공단은 **해양쓰레기 수거량 약 35% 증가와 시간당 운영비 약 93% 절감**을 달성하고, 쉐코는 **해외 4개국에 수상로봇 11대(8.02억원) 수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산악 조난자 수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지국 전파 데이터 31만 건의 개방을 추진**하고, **솔빛시스템**과 수색 알고리즘 공동설계 및 현장 실증을 수행. 솔빛시스템은 자체 전파분석 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과 전파중계 드론을 개발하고 공동특허를 등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색영역 96% 축소, 분석시간 180분→10분 단축** 및 중소기업 **4.7억원 납품실적 확보**

3. 국내외 판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2건)

❼ **'글로벌 광해방지 시장 공동 개척'**
(한국광해광업공단 – ㈜산하이앤씨)

❽ **'CU-푸드코아,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을 글로벌 판로로 잇다'**
(BGF리테일 – ㈜푸드코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사업 수행실적 부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산하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말레이시아, 몽골 등 **해외 정부기관 협의와 사업 발굴·수주를 주도**. 산하이앤씨는 폐광계획 수립·광산 복구설계 등 **전문기술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말레이시아 공동사업 수익 39.4만 달러(79%)와 몽골 사업 수익 4.4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몽골·중국에서 **해외 프로젝트 7건 독자수주 달성**

▲**BGF리테일**은 **푸드코아의 크림빵 제조기술에 자사의 상품기획·유통·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연세우유 크림빵을 공동 육성하고, 생산·품질관리 개선과 해외 판로 확대 지원. 푸드코아는 설비투자와 생산역량 강화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누적 판매 1억 개 달성, 푸드코아 매출 2.3배 성장** 및 **자체 브랜드의 해외 진출 및 '25년 1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4. AI·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2건)

❾ **'대기업 AI 기술과 중소기업 현장 노하우를 결합한 제조 AI 공동혁신'**
(LG전자 – ㈜네오플라테크)

❿ **'공공 수납시스템의 표준화·무상 개방으로 중소기업 시장 진입장벽 해소'**
(한국도로공사 – ㈜모노플랫폼)

▲**LG전자**는 AI 전문인력과 투자재원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던 **네오플라테크**에 **자체 AI 기술(EXAONE)과 제조 전문역량을 제공**하고, **제조 AI 솔루션 6종을 공동 실증**. 네오플라테크는 **공정 데이터와**

숙련자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여 AI 시스템 개발·검증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간당 생산량 6.3% 증가, 작업공수 22% 절감 및 공정불량률 3%→1% 개선**

▲한국도로공사는 스타트업의 공공 수납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체 예산 3억원으로 표준 API 플랫폼을 구축·무상 개방**하고, **모노플랫폼**은 모빌리티 앱 '휘슬'에 **미납통행료 조회·납부기능을 개발·연계**. 이를 통해 기존 **약 7천만원·1년이 소요되던 개별 시스템 개발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10.85억원 수납 및 행정비용 약 1.17억원 절감**, 모노플랫폼은 서비스 도입 전후 **월평균 매출 33.3% 증가**